

[기획] >> 5면

AI 융합전공의 위기

[기획] >> 7면

대면행사 확대에 따른 우려

[사회] >> 8면

장애인 이동권

[인물] >> 12면

주혜민 더핑크퐁컴퍼니 이사를 만나다

확정된 유사·중복학과(부) 폐과존치, 여전히 남아있는 갈등과 소요

지난 4일 우리학교 유사·중복학과(부) 관련 학칙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와 학생 간의 충분한 논의 없이 학교 측의 불통행정으로 진행됐단 지적이 있다. 이번 기사에서 △규정안 관련 논의의 배경과 진행상황△날카롭게 맞선 학교와 학생△여전한 학내 구성원 간 갈등에 대해 알아보자.

▶4면에서 계속

글 차승연 기자

우리학교 인도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개최해

지난달 27일 우리학교 인도연구소 HK+ 사업단은 '인도의 대전환: 지난 연구에 대한 탐색(Great Transition in India: Rethinking the Past Insights)' 이란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인해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김찬완 우리학교 인도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단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미국△싱가포르△영국△우라라△인도△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13명의 인도 지역 연구자의 발표 및 토론으로 이뤄졌다. 행사의 1부에선 이준호 인도연구소 HK+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인도의 공식 언어인 힌디어와 사상적 기초를 이루는 힌두이즘의 사회적 변화와 영향' 이란 주제가 다뤄졌다. 피터 프리드랜더(Peter Friedlander) 호주 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교수△김용정 인도연구소 교수(이하 김 교수)△디파 순다람(Dheepa Sundaram) 덴버대학교(University of Denver) 교수△이지현 인도연구소 HK+ 연구교수(이하 이 교수)의 순서로 발표가 진행됐다. 김 교수는 바라텐두 하리스찬드라(Baratendu Hariścandra)의 19세기 힌두 드라마를 바탕으로 한 정체성 수

립에 대해 논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인도 모디 수상의 만끼바트(Mann ki Baat)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2부와 3부에선 원탁회의의 형식으로 △인도 정치경제의 지속성과 변화△중국어와 인도의 관계△인도의 관세 개혁△우리나라와 인도 관계의 변화 등 여러 주제에 대해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지연정 우리학교 인도연구소 HK+ 연구교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 많은 학자들의 학문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졌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우리학교 인도연구소가 수행 중인 '인도의 대전환과 인도화의 한국적 재해석: 인도 지역연구의 세계적 거점 구축(Great Transition in India: A Korean Perspective on Indian Studies)' 이란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 연구아젠다 아래 진행됐다. 이번달 14일엔 '힌두이즘의 종교·사상적 대전환과 현대적 과제'에 대해 우리학교 인도철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우리학교 2년 연속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 선정돼

지난달 25일 우리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빅데이터 인재 양성 사업인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내 대학이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하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빅데이터 기업이 관련 직무 취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은 학생에게 실무에 필요한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팀 프로젝트를 제공해 즉시 실무에 투입 가능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의 총괄책임자인 두일철 우리학교 AI교육원 교수는 "자연어처리 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 확대로 언어 공학을 기반으로 한 자연어처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을 통해 우리학교 특성에 맞는 △기업 멘토 연계 실무교육△캐글(Kaggle)*을 활용한 팀 프로젝트 실습△한국어 특화 자연어처리 실습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무 중심의 교육 멘토는 △슈피겐 코리아(spigenkorea)△우리학교 AI 교육원과 통번역대학원

교수진△트위그팜(twigfarm) 등 산업체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해엔 용인시와 용인시산업진흥원과 협력해 실무 교육 이후 관내 기업 인턴 기회 제공을 비롯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협력시스템이 적용됐다. 유승리(공과·컴전20)씨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시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실무 경험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학교는 2019년 SW중심대학으로 선정된 후 'AI시대를 개척하는 글로벌 융합전문가 양성' 이란 목표로 실무 중심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연어처리 기반 딥러닝 기술 융합 과정'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SQL/SQL** 개발자와 ADSP(데이터분석 준전문가) 등 데이터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 취득이 지원되는 것은 물론 맞춤형 채용 정보 또한 주어진다.

*캐글(Kaggle): 머신러닝 및 데이터 사이언스 커뮤니티
**SQL: 데이터의 집합에서 정보를 얻거나 갱신하기 위해 표준 대화식으로 구성된 프로그래밍 언어

한 비 기자 04hanbi@hufs.ac.kr

Motor

Model number : SWBAM

Pneumatic

Model number : SWBAP







Headquarter



Factory & Offices

184-30 Cheonbulsandan-Ro, Cheonbuk-Myeon, Gyeongju-Si,
Gyeongsangbuk-Do, Korea
Tel. 82-54-772-6341 / Fax. 82-54-772-1441

Main products

Rising stem ball valves

Double block and bleed valves

Bi-Directional triple offset butterfly valves

Cryogenic valves

Automation valves

- Motor operated

- Pneumatic operated

- Hydraulic operated

www.snwvalves.com

우리학교 개교 68주년 기념식 및 HUFS AWARDS 시상식 개최

지난달 19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개교 68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행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대면과 비대면 송출로 동시에 진행됐다. 행사의 순서는 △개식 및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교내 포상 및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김봉철 우리학교 행정지원처장이 사회를 맡았고 김종철 이사장(이하 김 이사장)과 박정은 총장의 기념사 이후 양인집 총동문회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김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6.25 전쟁 후 열악한 여건에서 개교한 우리학교를 현재의 모습이 되게끔 노력해주시는 학내 모든 구성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시상식은 △동원교육상 포상 △장기근속자 포상 △우수 교원 및 직원 포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선 'HUFS AWARDS(이하 외대상) 시상식'도 개최됐다. 외대상은 우리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에게 국내 부문과 해외 부문으로 나뉘어 수여되는 상이다. 국내 부문에선 김덕술(아시아·일본어 81) 유니스트 리자산운용(주) 회장(이하 김 회장)이 수상했고 해외 부문에선 황한주(서양어·스페인어 83) 레바인 그룹 회장(이하 황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김 회장은 삼해상사(주)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원



▲지난달 19일 열린 개교 68주년 기념식(출처: 우리학교 전략홍보팀)

한 김 수출을 위해 국제식품규격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김을 사랑받는 상품으로 성장시켰다. 김 회장은 김 산업의 △대형화 △선진화 △세계화에 앞장서며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김이 가진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김 양식업 계와도 활발한 협

상생과 희망을 위해 힘썼다. 이에 이번 해 그는 국가 산업 발달의 공을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또한 우리학교 일본어과 동문회장을 역임하며 모교 사랑과 동문 단합에 이바지해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외대상을 수상했다. 황 회장은 중남미 진출 이후 △무역업 △부동산 △직물 수출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과테말라의 국립대학인 산카를로스 대학(Universidad de San Carlos de Guatemala)에서 17년간 무보수로 한국어 강의를 개설해 우리나라 언어와 문화의 우수성을 현지에 알리며 중남미에 우리나라와 우리학교의 위상을 떨치는 공을 세웠다. 황 회장은 미주 총동문회장과 재교태발라 동문회장을 역임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하고 명예를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 비 기자 04hanbi@hufs.ac.kr

황한주 레바인 그룹 회장 강의실 헌정식 열려

지난달 19일 우리학교 국제관 606호에서 황한주(서양어·스페인어 83) 레바인 그룹 회장(이하 황 회장) 강의실 헌정식이 개최됐다. 강의실 헌정식은 가정준 우리학교 대외협력처장(이하 가 처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기부자 약력 소개 △참석자 소개 △총장 감사 인사 △기부자 답사 △기부금 전달식 △강의실 동판 제막식 △기념사진 촬영 △폐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헌정식엔 △박미정 통변역대학원 부원장 △임향옥 통변역대학원장 △장봉익 미래위원회 위원장 △한원덕 통변역대학원 한서과 교수 △한서과 재학생 2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정명호(서양어·스페인어 85) (주)해피존 F&B 대표이사 △한상만(법·법 86) 한스(Hans) 코퍼레이션 대표이사 △홍수환 한국권투위원회 회장 △황 회장의 아내 △가수 '옥희'가 참석해 강의실 헌정을 축하했다.

지난달 14일 황 회장은 우리학교에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탁했다. 이에 우리학교는 황 회장의 지난 공로와 이번 기부에 감사를 표하며 통변역 인재를 양

성하는 국제관의 강의실 중 가장 많은 수업과 통역 훈련이 펼쳐지는 606호를 '황한주 강의실'로 헌정했다. 박정은 우리학교 총장(이하 박 총장)은 "자랑스러운 동문인 황 회장을 모시고 뜻깊은 행사를 하게 돼 기쁘다"며 "황 회장의 뜻을 이어 받아 훌륭한 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황 회장은 기부자 답사에서



▲강의실 헌정식 기념 사진 촬영 중인 박정은 우리학교 총장과 황한주 회장(출처: 우리학교 전략홍보팀)

"오늘 이 소중한 강의실에 제 이름을 새겨주셔서 감사하다"며 영광스러운 마음을 표했다. 또한 우리학교에서 4년간 배운 스페인어가 자신의 성공에 초석이 됐던 것을 강조하며 자리에 참석한 통변역대학원 학생들에게 "앞으로 세계 속에서 한국의 국어대학교 교란 브

은 해외에 있는 많은 동문과 함께 우리학교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강의실 동판 제막식과 기부금 전달식 이후 기념사진 촬영 및 가 처장의 폐회사가 진행됐다. 가 처장은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황 회장의 진정한 모교 사랑을 기억한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한편 황 회장은 우리학교 스페인어과 졸업 후 중남미 대륙의 코스타리카에서 무역업과 화훼업을 시작으로 해외 각지에서 다방면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황 회장은 과테말라 동문회장과 미주 총동문회장을 역임하며 우리학교 동문의 단합에 기여했고 매 학기 스페인어과 학생들을 현지에 초청해 체류 비용을 전액 지원했다.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우리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 릴레이 세미나 열어

지난 1일 우리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와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디지털 아카이브와 베네치아 타임머신 프로젝트(Venezia Time Machine Project)'의 1회차 세미나가 개최됐다. 베네치아 타임머신 프로젝트는 스위스 로잔연방 공과대학교(E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와 이탈리아 카포스카리 베네치아대학교(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가 AI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중세 베네치아를 인공지능 콘텐츠 형태로 구현해낸 프로젝트다. 이로 인해 르네상스 전체에 걸쳐 기록된 수백만 권에 이르는 세부 기록 사료가 빅데이터 형태로 복원됐다. 프레더릭 카플란(Frederic Kaplan) 스위스 로잔연방 공과대학교 교수는 "베네치아 타임머신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 과학기술이 역사 연구의 새로운 발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총 2회에 걸쳐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사회는 두 차례 모두 노명환 우리학교 사학과 및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교수가 맡았다. 1회차 세미나엔 김경자 부산외국어대학교 HK 연구교수(이하 김 교수)가 '실크로드와 지중해: 베네치아 타

임머신 프로젝트를 위한 중세 아카이브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발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가까운 미래엔 베네치아에서 북아프리카와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로 연결되고 궁극적으로 북수 문명권의 문화유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우리의 관심을 개별적인 역사 주제에서 이들 간의 관계와 교류로 옮겨가면 글로벌 세계를 볼 수 있다"며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공존시키는 타임머신의 역사 기행이 가능할 것이라 내용을 전했다.

오는 22일 저녁 8시에 열린 2회차 세미나에선 방재현 스토리안트(주)(Storyant) 대표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역사문화유산의 재현·활용: 디지털 인문학의 베네치아 타임머신 프로젝트 사례와 함께'를 다룬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 인문학과 디지털 아카이브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비 기자 04hanbi@hufs.ac.kr

우리학교 러시아연구소, 제5회 신북방정책포럼 개최

지난달 27일 우리학교 러시아연구소가 '제5회 신북방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러시아연구소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하는 '신북방정책포럼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돼 열린 다섯 번째 포럼이다. 이번 포럼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의 대응과 전후 복구사업 참여'를 주제로 △사회자 김영진 한양대학교 교수의 인사사유리아 전문가 4명의 발제 △종합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문가 발제 차례엔 △김익준 예코비스 대표 △이상준 국민대학교 교수 △이대식 여사재 기획실장 △박지원 코트라(KOTRA) 수석연구원이 각각 △우크라이나 사태 전후 공급망 변화 △우크라이나 재건과 우리나라의 시사점 △사방의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와 시사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우리나라의 공급망 문제와 회피



▲신북방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모습

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협력 요청의장을 마련했던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선래 러시아연구소 교수는 "5차 포럼은 현 정부와 여러 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와 우리나라의 공급망 붕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뤘다"며 이번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우리학교 러시아연구소는 1972년 설립된 국내 최초 사회주의권 국가 연구기관이며 소련 및 공산권 지역 연구를 이끌어왔다. 신북방정책포럼은 이번 해 12월까지 10개월간 신북방경제권 주요국의 △경제 △산업 △에너지 △통상 분야에서의 협력환경 변화와 현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관련 전문가들에게 공유하는 일을 수행하게 된다.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2학년도 후기신입생 모집

◆ 전형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2. 3. 23(수) 09:00 ~ 4. 1(금) 17:00	2022. 5. 9(월) 09:00 ~ 5. 18(수) 17:00
면접장소 발표	2022. 4. 28(목) 14:00 예정	2022. 6. 9(목) 14:00 예정
면접전형	2022. 4. 30(토) 10:00부터	2022. 6. 11(토) 10:00부터
합격자 발표	2022. 5. 13(금) 14:00 예정	2022. 6. 24(금) 14:00 예정

◆ 지원자격

[1] 특별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2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자로 학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 기준: 3.5(5.0 만점), 2.8(4.3 만점), 2.5(4.0 만점), 85(100점 만점) 이상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석사학위과정은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2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자로 석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 기준: 4.0(5.0 만점), 3.3(4.3 만점), 3.0(4.0 만점), 90(100점 만점) 이상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2] 일반전형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2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석사학위과정은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2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자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지원자격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모집과정 및 학과/계열 서류 등

세부사항: <http://gra.hufs.ac.kr>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우편제출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대학원 1층 102호)
대학원 입시담당자 앞

입시문의

02)2173-2386, 2397



김인철 우리학교 전 총장,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해

이번 달 3일 김인철 우리학교 전 총장(이하 김 전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퇴를 결정했다. 김 전 총장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지 20일 만이다. 김 전 총장은 “어떤 해명과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김 전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에 의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고등 교육 혁신△공정한 교육의 실현△교육부 개혁 등의 책임자란 이유로 김 전 총장의 지명 배경을 밝혔다. 이에 김 전 총장은 “앞으로 대학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기 혁신을 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및 격려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란 포부를 밝혔다.

김 전 총장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리학교 학생 A 씨는 “김 전 총장은 지난 8년간 우리학교에서 △고시반 지원△기숙사 추가건설△도서관 신축△학과 개편△특수외국어 진흥부 통과 지원 등을 했다”며 “같은 동문인 김 전 총장의 지명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가연(사회·행정 20) 씨는 “김 전 총장을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우려스럽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후보자 지명 후 △김 전 총장 아들 B 씨의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금 산정 관련 의혹△김인경(글로벌스포츠·글로벌스포츠 12) 골프선수 학점 특혜 의혹△업무추진비 삭감 이행 실패 등의 과거 이력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특히 지난 2015년 아들 B 씨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프) 영어학과를 졸업한 뒤 풀브라이트 재단(Fulbright Korea) 장학생으로 선발돼 재단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2년부터 약 3년간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9년과 2014년 두 차례 한미 교육문화재단의 감사를 맡았다. 김 전 총장이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이던 당시 B 씨가 사회과학 분야에 지원해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30년을 통틀어 사회과학 분야에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김 전 총장 측은 “장학금 선발은 주한 미 외교관이 전 과정을 감독한다”며 “내부 관련자는 평가에 참여하거나 일체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난달 27일 김 전 총장에 대해 우리학교 설캠프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김 전 총장의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설캠프 총학은 “김 전 총장은 지난 8년간 우리학교에서 학생과 불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대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자질이 의심되며 불통 행정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대검찰청 감찰위원△감사원 감사위원△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또한 지난 1988년 설캠프 행정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기획처장△교무처장△대외부총장을 거쳐 2014년부터 이번 해까지 우리학교 총장직을 맡았다. 우리학교에선 △각종 융합 전공 개발△대학 상징색 변경을 통한 이미지 개선△송도 캠퍼스 투자 유치△졸업 학점 간소화 등의 노력을 했다. 하지만 △독선 행정△상대평가 소급 적용 통보△50억 회계 부정 논란 등으로 인해 재학생과 마찰을 빚었다.

나라나 기자 04rinaisme@hufs.ac.kr

글로벌캠퍼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오오칠팔구와 산학교류 및 협력 체결해

지난달 19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글캠 백년관 회의실에서 우리학교 동문으로 구성된 온라인 강의 및 취업 컨설팅 기업인 (주)오오칠팔구와 산학교류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학교 학생에게 오오칠팔구의 진로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기적인 산학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학교 학생은 비교과통합시스템 흡스어빌리티(HUFSAbility)에서 프리클래스(PRE-CLASS)를 이용할 수 있다. 프리클래스를 통해 실시간 비대면으로 △직무별 자기소개서 및 면접 대비 핵심 포인트스 직무별 취업 준비과 정△직무별 포트폴리오 제작 노하우△현업 1:1 지도△해당 직무와 핵심 역량 소개 등의 강의를 이용할 수 있다. 오오칠팔구가 제공하는 수업에선 현직자 멘토가 취업 준비하는 학생에게 직무와 관련된 과제를 제공해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오세훈 우리학교 글캠 학생·인재개발처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우리학교 학생들이 양질의 현직자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받아 취업률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원



▲우리학교와 (주)오오칠팔구 간의 산학협력 현장실습 협약식 (출처: 우리학교 전략홍보팀)

영 오오칠팔구 대표는 “우리학교와 산학협력을 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더 나은 진로 취업 프로그램 제 공을 위해 오오칠팔구를 더욱 성장시키겠다”고 답했다. 김지호(공과·컴공 21) 씨는 “오오칠팔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학교의 다양한 진로 취업 프로그램 설계가 예상된다”며 “앞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대학일자리플러스 본부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슬리(국제지역·러시아 22) 씨는 “오오칠팔구의 온라인 강의와 취업 컨설팅이 취업에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학교 글캠 대학일자리플러스 본부는 △공공인재개발원 PSAT 모의 응시를 통한 고시 지원자 발굴 및 홍보사업△글캠 총학생회와 함께 하는 코딩 멘토링 사업△기업탐방 직업 체험 활동 강화 사업△버크먼검사와 MBTI 검사를 통한 자기 이해 프로그램△저학년 학생 대상 ‘H-up’ 진로 탐색 학점제 사업△학과 진로 취업 서포터즈 활동 사업 등을 계획 중이다.

나라나 기자 04rinaisme@hufs.ac.kr

우리학교 아랍어과 학우들, 2020 두바이 엑스포(EXPO 2020 Dubai) 감사장 수상해

지난달 29일 우리학교 아랍어과 △이재현(아시아·아랍어 17)△유혜원(아시아·아랍어 17)△태나영(아시아·아랍어 18)△하승권(아시아·아랍어 17) 씨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레일(Korail) 유통 본사에서 ‘2020 두바이 엑스포(EXPO 2020 Dubai) 감사장’을 수상했다. 이들은 코레일유통 직원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이번 해 3월 31일까지 진행된 2020 두바이 엑스포의 한국관 내 2층에 위치한 팝업스토어(Pop-Up Store)에서 근무했다. 팝업스토어에선 △우리나라 전통 상품△한류 식품△핸드폰케이스와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혁신 상품△화장품과 패션 마스크 등을 포함한 한류 소비재 상품 등 약 300여 개 제품의 홍보와 판매가 진행됐다. 또한 이들은 한국관에서 진행된 △한국의 날△한 국주간△K-pop 공연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현지 경험을 쌓았다. 코레일유통 유통사업본부에선 이들의 유창한 전공언어(이하 전공어) 능력과 현지 친화적인



▲2020 두바이 엑스포(Expo 2020 Dubai) 감사장 수여받는 우리학교 아랍어과 학우들(출처: 우리학교 전략홍보팀)

마케팅 역량을 높게 평가해 공로를 인정했다. 윤은경 우리학교 아랍어과 교수는 “2020 두바이 엑스포는 학생들에게 강의실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을 것이다”며 “아랍 현지 실무 경험이 학생들의 향후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아(아시아·아랍어 22) 씨는 “우리 학과 선배들이 2020 두바이 엑스포에서 큰 역할을 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2020 두바이 엑스포처럼 전공어를 현장에서 사용할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0 두바이 엑스포는 ‘마음의 연결’과 ‘미래의 창조’를 주제로 저탄소 배출과 재활용 영역과 같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성과를 전시했다. 이 중 한국관은 192개 참가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했으며 전시관 건축을 비롯해 6개월간 현지 운영비용으로 약 410억 원이 투입됐다.

나라나 기자 04rinaisme@hufs.ac.kr

2022년 정기시험 안내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수년간의 개발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능력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자격정보 안내 <http://flex.hufs.ac.kr>

1. 2022년 FLEX 정기시험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 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2.17 ~ 02.23	03.20	04.08	04.22
2회	04.28 ~ 05.04	05.29	06.17	07.01
3회	08.04 ~ 08.10	09.04	09.23	10.07
4회	10.06 ~ 10.12	11.06	11.25	12.09

※ 원서접수 마지막날의 마감시간은 18:00입니다.
※ 고사장, 응시 과목에 따라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LEX 듣기·읽기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민간자격이며, 말하기, 쓰기는 등록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응시자격: 제한없음

3. 평가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1개 언어 선택 응시 (동시에 2개 언어 응시 불가)

4. 원서접수: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접수 가능
<http://license.korcham.net>

5. 응시료: 듣기·읽기 42,000원, 말하기 70,000원, 쓰기 70,000원

- ▶ 접수 수수료: 1,200원
- ▶ 수험료 환불규정: 접수 기간 내 100% 환불 접수마감 이후~시험일 5일전 50%환불, 접수 수수료 환불 불가 시험일 4일전 이후 환불 불가

6. 결과발표

- ▶ 확인처: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http://license.korcham.net> (문의) 02-2102-3600
- ▶ 성적유효기간: 시험일로부터 2년

7. 참고사항

재학생 iBT FLEX(영어, 중국어) 응시 자격
: iBT 시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FLEX 정기시험(해당 언어)에 응시한 자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확정된 유사·중복학과(부) 폐과존치, 여전히 남아있는 갈등과 소요

지난 4일 우리학교 학칙 개정안이 법인 이사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중복학과(부) 폐과존치 규정안(이하 규정안)’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이름’(이하 설캠 총학)과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외대의 봄’(이하 글캠 총학)은 이를 막기 위해 △기자회견△노숙농성△총장과의 대화△학생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학칙 개정안은 최종 통과됐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학교의 불통행정이 재조명됐으며 양 캠퍼스(이하 양 캠퍼) 간 학생 갈등이 심화됐다. △규정안 관련 논의의 배경과 진행상황△날카롭게 맞선 학교와 학생△여전한 학내 구성원 간 갈등에 대해 알아보자.

◆유사·중복학과(부)폐과존치의배경과진행상황

우리학교 측은 지난 3월 2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유사·중복학과(부) 학생 대표자들에게 유사·중복학과(부) 폐과존치(이하 폐과존치)와 관련한 ‘구조조정안 및 관련 학과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제시했으며 폐과존치를 공식화했다. 이에 지난달 4일 글캠 총학은 구조조정 대상 유사·중복학과(부) 학생과 함께 총장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지난 3월 24일 설캠 총학 또한 기획조정처장과의 면담 후 학교 측에서 폐과존치 관련 논의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달 6일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달 15일 설캠 총학과 글캠 총학은 유사·중복학과(부) 구조조정 관련 합동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를 구성해 양 캠퍼의 공동된 우려지점을 전달하려 했으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 후 설캠 총학의 경우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7일간 노숙농성을 진행했으며 글캠 총학의 경우 지난달 27일 긴급집기총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의 이런 행보에도 지난달 28일 학칙 개정안은 교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29일 설캠 총학을 비롯한 여러 학생은 대학평의위원회가 진행된 설캠 본관 2층 일대를 점거했다. 그 결과 설캠 학생처장과 부총장이 회의에서 규정안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실제 대학평의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문서는 수거됐다. 그러나 지난 4일 진행된 법인 이사회 회의에서 규정안은 가결됐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 글캠 통변역대학 소속 전체 4개 학과(△영어통번역학부△일본어통번역학과△중국어통번역학과△태국어통번역학과)와 국제지역대학 4개 학과(△러시아학과△브라질학과△인도학과△프랑스학과)가 폐과존치 상태로 운영된다. 또한 해당 학과는 다음 해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폐과존치된 과의 인원은 글캠 내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뉜 글로벌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한 후 이월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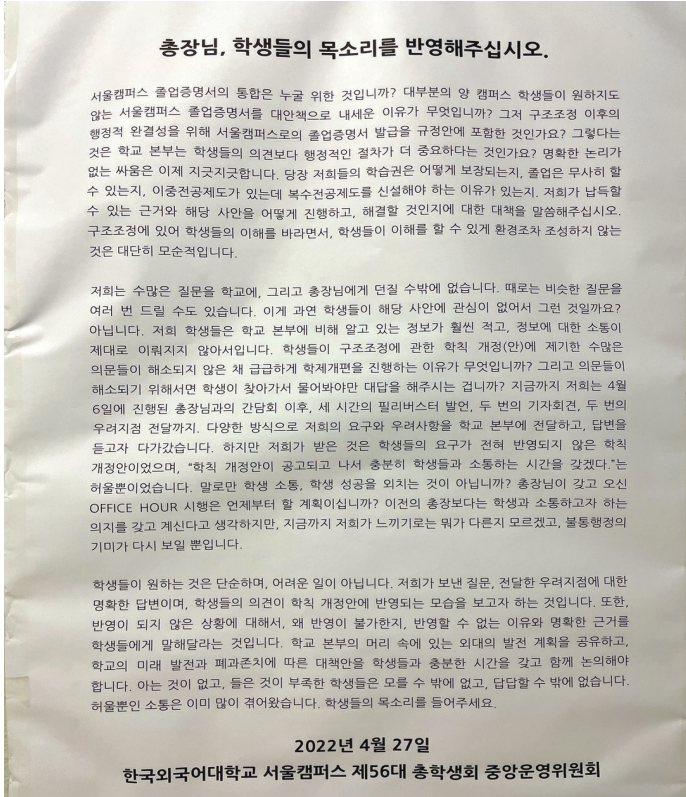
◆날카롭게 맞선 학교와 학생

지난달 5일 설캠 총학이 ‘총장과의 대화’에서 직접 총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진행했던 유사·중복학과(부) 구조조정 관련 긴급 설문조사 중 ‘우리학교 측의 지양해야 할 조치’를 묻는 질문에 ‘2개 이상 전공 취득 시 학위증과 졸업증서에 명기할 전공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와 ‘구조조정 해당학과의 재적생이 0명이 되는 시점 이후 해당 학과명으로 발급한다’가 각각 84.2%와 82.4%를 기록했다. 이에 설캠 총학은 ‘전공 선택 기입’과 ‘서울캠퍼스 학과 소속 졸업장 발급’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정은 우리학교 총장(이하 박 총장)은 설캠에서 이뤄진 간담회에서 “글캠 학생들의 어려움이 클테니 이해해달라”며 호소했다. 또한 “설캠 학과가 명시된 졸업증서는 7~8년 뒤의 일이니 취업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고 답했다. 그러나 설캠 총학은 “2개 이상 전공 취득 시 전공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채 급급하게 학제개편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그리고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아서 학생이 찾아서 물어보아야만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저희는 4월 6일에 진행된 총장님과의 간담회 이후, 세 시간의 밀리버스트 발언, 두 번의 기자회견, 두 번의 우려지점 전달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의 요구와 우려사항을 학교 본부에 전달하고, 답변을 듣고자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받은 것은 학생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학칙 개정안이었으며, ‘학칙 개정안이 공고되고 나서 충분히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허울뿐이었습니다. 말로만 학생 소통, 학생 성공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까? 총장님이 갖고 오신 OFFICE HOUR 시행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십니까? 이전의 총장보다는 학생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느끼기로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불통행정의 기미가 다시 보일 뿐입니다.

수 있다. 한편 지난달 4일에 진행된 총장과의 대화에서 유사·중복학과(부)에 속한 학생과 교수의 권리 보장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다. 박 총장은 유사·중복학과(부)에 속한 학생 중 진류를 희망하거나 해당 학과를 이종전공하길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 “진류를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대책 마련은 논의 중이며 외국어 센터를 활용해 외국어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중복학과(부)소속 교수의 이전 문제에 대해선 “교수의 소속 변경과 그에 따른 신분보장을 철저히 할 것이며 명예교수로 가는 방안



▲서울캠퍼스 본관 대학평의위원회 대응행동 점거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이름’ 입장문

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글캠 재학생 B 씨는 “우리학교가 유사·중복학과(부)가 많았으니 언젠간 발생할 문제였다고 생각하지만 해당 학과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유사·중복학과(부)에 재학 중인 글캠 재학생 C 씨는 “재학 중인 학과가 설캠에 이미 있기 때문에 폐과존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다”며 학교 측의 행보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양 캠퍼 총학은 모두 이번 유사·중복학과(부) 관련 학칙 개정이 학생과의 원활한 소통이 부재된 채 긴급히 진행됐단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글캠에서 진행된 총장과의 대화 중 박 총장은 “촉박한 진행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양 캠퍼

교수의 정년이 다가오는 시기에 폐과존치를 진행하는 것이 학교의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설캠 총학은 “우리학교가 학내 구성원이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가는 학교란 인식은 우리학교 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학생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일을 진행한 학교의 행정을 비판했다. 글캠 총학 또한 “학교는 학생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학교의 일방적인 일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양캠 총학 사이의 의견 불일치도 발생했다. 양캠 총학의 중운위 내에서 작성한 합동 요구안 중 제3조 3항과 4항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제3조 3항과 4항의 내용은 각각 ‘구조조정 해당 학과의 재적생 0명이 되는 시점 이후 졸업증서에는 서울캠퍼스 해당 학과(부)명으로 발급한다’와 ‘이종전공(후기이종전공 포함) 선발자는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이다. 이에 대해 설캠 총학은 “양캠 간의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모두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며 글캠 총학과 입장 차이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한편 글캠 총학은 “학생들이 공동된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회의가 진행됐다”며 정확한 입장을 도출하지 못한 채 합동 요구안을 작성하려고 한 것이 문제였음을 밝혔다.

◆여전한 학내 구성원 간의 갈등

유사·중복학과(부)구조조정 관련 사건으로 인해 양캠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엔 설캠 학생과 글캠 학생이 서로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상대 캠퍼스를 무분별하게 혐오하는 표현도 마천가지였다. 설캠 학생의 경우 양캠 간 입학성적의 차이가 분명하단 글캠 학생에게 설캠 소속의 졸업증서가 발급되는 것은 부당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편 글캠 학생은 유사·중복학과(부) 폐과존치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과 대안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단 태도를 보였다. 양캠 간에 발생하는 무분별한 갈등 상황에 대해 설캠 총학은 “양캠 학생 간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을 학교 측에서 인지하고 해소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런 부작용을 학교 측에서 예측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글캠 총학은 “학교 측에서 폐과존치의 이유와 배경을 학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 모두가 납득되게끔 노력해야 한다”며 양캠 학생들이 유사·중복학과(부) 폐과존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학교의 불통행정 문제 또한 재조명됐다. 우리 학교는 지난해에도 2학기 성적 평가 방식 변화와 학점 백분위 산정 방식 등 학생과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새로운 방식을 정해 비판받은 바 있다. 이번 해 새로 취임한 박 총장이 소통의 부재를 해결할 ‘소통행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학생들의 실망도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총장은 ‘외대 신문고’와 ‘총장 오피스 아워(Office hour)’를 통해 학내 구성원 간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최근 규정안 시행 과정에선 학생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단 의견이 존재한다. 유다은(아시아·마인어21) 씨는 “학교 측이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폐과존치를 진행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설캠 총학의 ‘법인이사회 회의 대응 행동 진행 완료 보고’에 따르면 앞으로의 규정안 집행 과정 속 세부 규정 논의 과정에 학생이 참여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을 밝혔다. 또한 설캠 총학이 학교 측과 논의한 결과 우리학교도 학생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통합을 추구하는 학교의 선택을 무마할 생각은 없다”며 “따라서 세부 규정을 논의할 때 학생의 회의 참여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글캠 총학은 이번 유사·중복학과(부) 폐과존치 대상이 아닌 전류학과에 초점을 맞춰 해당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AI 융합전공, 진정한 융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선

우리학교는 지난해 9월 AI 융합전공을 신설했다. 이는 지난 2020년부터 각각 개설된 언어와 공학 전공과 융복합소프트웨어 전공을 하나의 융합전공으로 통합 및 개편한 것이다. 하지만 △교수진 및 강의 부족△재학생 간 정보격차 심화 △기존 학부와의 유사성 등 AI 융합전공과 관련한 재학생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

다. 이에 더해 지난해 12월 박정은 우리학교 총장(이하 박 총장)이 정견 발표에서 AI 융합대학 및 대학원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 설립하겠다고 해 기존에 있던 AI 융합전공이 다시금 주목받았다. △AI 융합전공의 설립 배경 △재학생이 AI 융합전공에 갖는 불만△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AI 융합전공의 설립 배경

지난 2019년 우리학교는 소프트웨어 핵심 인재 양성체계가 원활히 구축됐단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하 SW 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는 지난해까지 추가예산을 지원받았으며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융합대학을 신설하겠다는 계약 아래 2020년 융복합소프트웨어학과와 언어와 공학을 융합전공으로 먼저 개설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이를 통합해 AI 융합전공을 신설했다. AI 융합전공에 소속된 2학년은 공통 과정을 이수하고 3학년 진입 시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에 개설된 ‘Business & AI 트랙’ △설캠에 개설된 ‘Language & AI 트랙’ △양 캠퍼스에 모두 개설된 ‘Software & AI 트랙’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수하려는 트랙이 자신의 캠퍼스에 없을 경우에만 캠퍼스 간 교차 수강이 가능하며 트랙 변경은 1회 허용된다. △경상대학이 Business & AI△컴퓨터공학부가 Software & AI△ELLT 학부와 언어인지과 학과가 Language & AI 트랙의 교육을 담당한다.

이용웅 우리학교 Business & AI 트랙 소속 교수는 AI 융합전공의 취지에 대해 “인문계열을 택한 학생이 본전공과 최근 필요성이 대두되는 AI 분야를 모두 배움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가 되도록 돕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AI 융합전공에 소속된 모든 학생은 2학년 때부터 ‘고급파이썬프로그래밍’ 과목 등 실습과 관련된 강의를 필수 수강해 코딩의 기초를 다진다. 이후 트랙의 특성에 따라 △Business & AI 트랙의 Business AI 프로젝트(캡스톤 디자인) 이수△Language & AI 트랙의 졸업시험 통과△Software & AI 트랙의 졸업논문 작성 등 차별화된 졸업요건을 이수해야 한다. 이런 AI 융합전공의 차별화된 교육에 대해 강민정(서양어 · 포르투갈어 21) 씨는 “어떤 트랙을 택하던 컴퓨터공학의 기초를 쉽게 배울 수 있다”며 “어문 계열만을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컴퓨터공학 관련 지식을 모두 갖추 수 있어 만족한다”라고 전했다.

◆재학생이 AI 융합전공에 갖는 불만

설립 후 한 학기가 지난 지금 AI 융합전공 소속 재학생은 △교수진 및 강의 부족△재학생 간 정보격차 심화△기존 학부와의 유사성 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현재 AI 융합전공에 포함된 교수진은 모두 △산업경영공학학과△컴퓨터공학부△ELLT학과 등의 타 학부에 속해있다. Software & AI 트랙을 택한 장정아(경영 · 경영 19) 씨는 “AI 융합전공에 소속된 교수님이 적어 교수님 한 분이 융합전공 트랙 내에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높아지는 학부 인기에 따라 특정 강의에선 80명까지 인원 제한을 늘렸음에도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은 학우가 많다”라고 전했다. 실제 AI 융합전공은 계절학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 전공 필수 과목이 특정 학기에만 개설되기에 휴학과 같은 개인 사정으로 해당 과목을 듣지 못하면 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한 해를 기다려야 한다. 이와 함께 재학생 간 정보 격차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Software & AI 트랙을 택한 정나윤(사회 · 미디어 19) 씨는 “학과나 단과대학 규모의 학생회가 존재하는 다른 전공과 별개로 AI 융합전공은 학생의 의견을 통합해 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하다”며 “AI 융합전공 신설 이후 계속 비대면 수업이 진행돼 선후배 간 교류가 매우 어려운 것이 아쉽다”라고 답했다. 변영창(경상 · GBT 21) 씨는 “아직 학부가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아 AI 융합전공 내 △관련 동아리△대회△연합프로젝트 등의 정보 교류가 굉장히 협소하다”라고 전했다.

AI 융합전공과 다른 학부 간의 유사성 문제도 제기된다. △Business & AI 트랙은 GBT학부△Language & AI 트랙은 언어인지학과△Software & AI 트랙은 컴퓨터공학부와 유사해 추후 유사 중복학과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존재한다. 실제로 Software & AI 트랙의 졸업 필수 과목인 △‘소프트웨어공학’ △ ‘알고리즘’ △ ‘자료구조’ △ ‘종합

AI 융합 교과과정			
학년	Language & AI 트랙	Software & AI 트랙	Business & AI 트랙
1	컴퓨팅사고(교양), 컴퓨터프로그래밍(교양)		
2	고급파이썬프로그래밍(공통)* 컴퓨터수학(공통)* 언어와논리 확률과통계(공통)* 자료구조(공통) 언어공학개론* 인지과학입문	고급파이썬프로그래밍(공통) 컴퓨터수학(공통) 공학설계 컴퓨터논리개론 확률과통계(공통) 자료구조(공통)* 컴퓨터구조	고급파이썬프로그래밍(공통)* 컴퓨터수학(공통) Business AI 개론* 확률과통계(공통) 자료구조(공통) 비즈니스애널리틱스1
3	컴퓨터와언어학* 언어분석을위한프로그래밍* 코퍼스와언어자료 언어데이터분석의기초* 언어분석을위한통계	데이터사이언스 알고리즘*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기계학습 컴퓨터네트워크 소프트웨어공학*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2 비즈니스데이터베이스 금융공학 이론 및 실습 AI 마케팅 Business AI 사례연구 소셜콘텐츠편석
4	실용언어처리 언어와 데이터베이스 실용음성처리 언어분석을위한기계학습	인공지능 웹프로그래밍 종합설계* 빅데이터 정보보안	텍스트마이닝 비즈니스머신러닝 이론 및 실습 비즈니스 딥러닝 Business AI 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
● *로 표시된 과목은 트랙 필수과목임			

▲AI 융합전공의 3개 트랙

설계’는 모두 컴퓨터공학부의 수업과 중복됐다. Language & AI 트랙과 언어인지학과와의 ‘컴퓨터와 언어학’ 과목, GBT학부와 Business & AI 트랙의 ‘e-business 개론’ 등의 수업도 마찬가지다. 현재 AI 융합전공의 전공 수업인 ‘고급파이썬프로그래밍’ 과목을 수강 중인 박혜림(경상 · GBT 21) 씨는 “수강하고 있는 AI 융합전공의 2학년 트랙 과목 대부분이 본 전공에서 다루는 내용과 겹친다”며 “두 전공이 유사하기 때문에 전공을 살려 취업시장에서 특색있게 보이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유승리(공과 · 컴전 20) 씨 또한 “학부 수준의 AI 관련 과목은 대부분 컴퓨터공학부 교육과정 내에 포함돼 이미 컴퓨터공학부에 AI 전공 트랙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본적으로 각 학과의 교육과정과 융합전공 내 관련 트랙의 교육 목표가 크게 다르지 않단 것을 의미한다.

지난 12월 16일 박 총장은 정견 발표에서 AI 융합대학 및 대학원을 설캠에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글캠 총학생회 ‘외대의 봄’ (이하 글캠 총학)은 공과대학 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꾸준히 반대 의견을 펼쳤다.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박 총장은 지난달 4일 글캠에서 진행된 ‘총장과의 대화’에서 “신설될 AI 융합대학 건물의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김현익(공과 · 컴전 17) 씨는 “AI 융합대학을 설캠에 단독 설립하는 것은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

다”며 “이는 기존 컴퓨터공학부의 교수진 및 학부 운영 지원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공과대학 전체에 큰 피해가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더불어 현재 AI 융합전공 사무실은 설캠에만 위치돼 있다. 또한 컴퓨터공학부의 실습실 등 컴퓨터 공학 관련 개발 환경은 글캠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AI 융합대학 설립 후 대면 수업 시 원활한 실습수업 가능 여부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우려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글캠 총학은 “AI 융합대학은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음을 학교 측에 확인했으며 차후 이 사업이 진행될 때 공과대학의 학과와 유사성 여부를 따져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I 융합전공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근섭 우리학교 AI 융합전공 주임 교수는 “AI 융합전공은 최근에 설립됐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 비교적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지난해 9월 융합전공이 설립된 직후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며 각 트랙에 대한 재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중전공 신청 기간에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교수진 및 강의 수 부족의 경우 AI 분야 신입교원 충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을 강조했다. 두영웅 우리학교 AI 융합전공 조교는 “AI 융합전공은 이중전공 전용 전공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의 학생이 참여하는 만큼 학생 대표 선발이나 전공생 간 정보 교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AI 융합전공 전달 행정 조교를 채용하고 있고 추후 학과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학생과 소통하는 기회를 늘릴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우리학교와 같이 제1 전공을 가진 학생이 제2 전공으로 AI 융합교육을 받는 학교론 서강대학교(이하 서강대)가 존재한다. 지난 2014년 SW 중심대학에 선정된 직후 서강대는 융합소프트웨어연계전공을 개설해 컴퓨터공학 관련 학부가 아닌 타 학과 및 학부 재학생이 2학년 때 융합전공으

로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서강대 융합소프트웨어연계전공은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과의 취업 및 인턴 연계를 통해 재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바 있다. 또한 학습 과정에서 컴퓨터공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집중 조교제’를 실시해 주기적으로 재학생을 돕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AI 융합전공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많은 기대를 품고 신설됐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통 미흡으로 재학생의 불만이 발생했다. 진정한 융복합형 인재를 통해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선 학내 구성원 간의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것이 새로웠던 미국

이번 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4개월간 우리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트로이대학교(Troy University)에서 공부했다. 학기는 1월에 시작했지만 여행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미국으로 출발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대체로 평화로웠다. 트로이대학교는 미국 앨라배마 주(Alabama)의 한적한 도시에 위치해 있어 미국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주한 도시의 느낌과는 다르다. 마트와 같은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면 차를 타야 하지만 복잡한 도심과 다른 여유를 느낄 수 있다.

평일 오전엔 한 수업당 50분 또는 75분씩 진행되는 수업을 듣고 대개 오후 3시 이전에 모든 수업이 끝난다. 수업이 일찍 끝나 심심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각종 학교행사와 과제 때문에 심심하다고 느낄 틈이 없었다. 5달러를 내고 참여하는 교내 프로그램을 통해 운동을 하거나 친구의 차로 시내에 나가 놀기도 했다. 또한 다양한 학교 활동에 참여했는데 그중 최근에 참여한 국제학생을 위한 프롬 파티(Prom Party)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학교에서 대여해줘 처음 입어본 드레스는 불편했지만 색다른 경험이었다. 드레스를 입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행사를 즐겼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한 학기에 많게는 다섯 번까지 시험을 치르고 매주 과제도 있어 틈틈이 공부해야 했다.

3월엔 봄 방학이 있어 10일 동안 로스앤젤레스(이하 LA) 여행을 다녀왔다. 지금까지 다양한 국



가와 도시로 여행을 다녔지만 LA는 그 중 단연 최고였다. △엄청난 규모의 조슈아 트리(Joshua Tree) 사막지대 국립공원△영화에서만 보던 할리우드(Hollywood) 거리△타트 트인 산타 모니카(Santa Monica) 해변 모두 LA가 자랑하는 풍경이기에 미국에 가게 된다면 꼭 방문하길 추천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큰 도시가 아니라면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있지 않다. 따라서 학교 통학 버스가 운행되는지 확인하거나 면허가 있다면 직접 운전하는 것이 좋다. 또한 트로이대학교엔 △셰어하우스(Share House)△취사 가능 기숙사△



여성 전용기숙사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가 있다. 각자 성향에 맞춰 고르면 되지만 예약이 빨리 차기에 최대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처음 만나는 룸메이트(Roommate)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기에 금전적인 여유가 된다면 1인실을 추천한다. 한식이 그리울 땐 직접 요리를 하거나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몽고메리(Montgomery)에서 한식당과 한인 식료품점을 이용하면 된다. 한인 식료품점에는 △김치△라면△즉석밥 등 다양한 한식을 팔고 있다. 트로이에서의 생활을 끝마치며 느낀 것은 돈과 시간을 투자할 충분한 가치가 있던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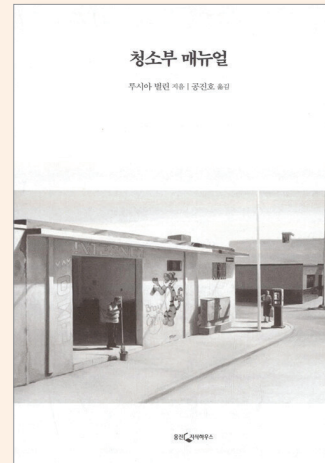
다. 타지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해 한 학기를 무사히 마쳐 뿌듯했고 이는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에 교환학생을 고민하는 학우가 있다면 꼭 지원하는 것을 추천한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대학생활을 한단 것은 흔히 않은 기회이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며 일한 일상을 보내길 바란다.

이예진(상경·경제 19)

미국

<청소부 매뉴얼>

- 보석 같은 일상 속에 스며든 유머와 슬픔 -



사후 11년 뒤에야 '여자레 이먼드 카버'라 불린 천재 단편소설 작가가 있다. 그녀의 이름은 '루시아 별린'이다. 1936년 알래스카에서 태어난 그녀는 광산업을 하던 아버지를 따라 미국 서부 지역과 칠레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녀는 다수의 연애와 세 번의 결혼을 통해 얻은 네 아들을 홀로 키웠다. 오랜 시간을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고

신체적으로 척추염증증상이 심해 말년에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았다. 굴곡진 인생을 살다 2004년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책 '청소부 매뉴얼'은 일생 동안 그녀가 쓴 여러 단편의 일부를 골라 엮은 선집이다. 소설은 그녀가 겪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쓰였기 때문에 주인공의 이름은 계속 바뀌지만 전부 그녀의 이야기라 봐도 무방하다. 각 단편은 △소녀△젊은 여성△중년 여성의 시점으로 구성된다. 작품은 나이 순서대로 배치되었지만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주인공의 인생이 하나의 완성된 퍼즐처럼 완벽한 모양을 갖춘다.

이 책에선 루시아 별린의 장기인 유머 감각이 여과 없이 발휘된다. 그녀는 △청소부△응급실 직원△전화 교환수△고등학교 선생 등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 또한 여러 단편을 통해 △가난한 생활△다수의 결혼과 이혼△알코올 중독 등 굴곡진 사건들로 가득했던 그녀의 삶을 특유의 유머 섞인 시선으로 풀어낸다. 그녀의 힘들지만 재치 있는 인생을 바라보며 독자 역시 힘겨운 인생 속에 조용히 숨어 있는 애뜻한 순간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루시아 별린은 사후 11년 뒤에야 조명된 불운한 작가다. 뒤늦게 조명된 명작에 △리디아 데이비스△조이스 캐럴 오츠△토머스 맥 구언 등의 소설가가 찬사를 바쳤고 우리나라에선 김연수 소설가와 박찬욱 영화감독이 그녀의 작품을 극찬했다. 슬픈 인생을 비참하게만 풀어내지 않고 유머와 함께 섞어 보석 같은 일상으로 세공한 청소부 매뉴얼을 읽으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숨어 있는 소중한 순간들을 발견하기 바란다.

장래산 기자 03raesan@hufs.ac.kr

사진으로 보는 기록과 외대사

'The Unique & The B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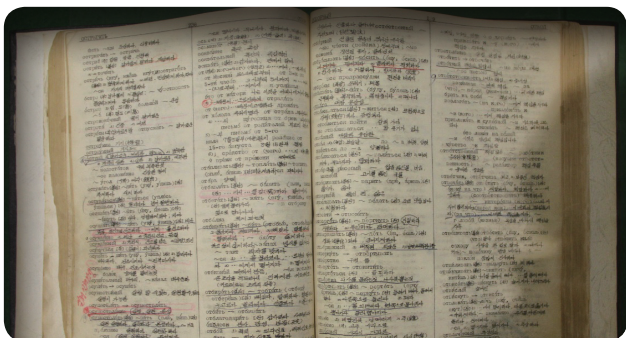
④ Hufs makes me special :

세계로 향하는窓, 세계와 소통하는 冊을 열다



▲1960년대 우리학교에서 사용한 러시아어 타자기(기연수 노어과 명예교수 기증)

우리학교는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의 선구자로서 외국어 교육 환경의 확대와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 왔다. 그 대표적인 행보 중 하나가 바로 외국어 교재의 출판이다. 1950년대 개교 당시 국내엔 전문적인 외국어 교재가 보급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우리학교 교수진은 직접 타자를 치거



▲1963년대 발간된 '노한사전'

나 손으로 필사해 만든 쪽지 교재로 수업을 진행했다. 체계적인 어학 교육을 위해 교재의 개발과 편찬은 필수 조건이었고 이를 위해 현재 지식출판콘텐츠원인 당시 우리학교의 출판부는 교원과 함께 양질의 교재 개발을 위해 절치부심했다. 그 결과 우리학교 창설 몇 해 이후 그동안 준비



▲2017년 지식출판콘텐츠원 다국어콘텐츠 개발 서비스 MOU 체결식

해왔던 교재가 잇달아 출간될 수 있었다. 1961년에 '표준 일본어 교본'이 출간됐고, 이후 '중국어'와 '독일어 고급 독본' 등 수백 편의 교재가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출간된 교재는 우리나라 어학 교재의 표준으로 인식될 만큼 높은 수준을 자랑했다.

외국어 학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전이었다. 하지만 1950~1960년대 당시 강의에 사용할 외국어 교재조차 부족했고 한국어로 번역된 외국어 사전은 더 찾아보기 어려웠다. 외국어를 공부하는 이들은 영어로 번역된 사전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국내 어학 교육의 큰 장애물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 출판부는 1963년 4월 우리나라 최초로 '노한사전'을 발간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를 공부

하는 우리나라 학생과 연구자에게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63년 '서한사전' △1969년 '이한사전' △1978년 '한불사전' 등 각종 외국어 사전이 잇달아 발간됐다. 1993년 8월엔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언어 백과사전인 '세계의 주요 언어'가 출간됐다. 국내 언어 교육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와 한층 더 가까워진 것이다. 어학사전의 편찬은 우리학교의 학문적 정체성 조성에도 큰 역할을 했다. 냉전체제 당시 국내에선 아무도 시도하지 않던 공산권 국가 언어사전을 편찬함으로써 관련 연구 활성화와 지역학 전문가 양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 또한 동구권 이봉괴된 이후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와 교류할 수 있는 언어적 토대를 제공하고 소통의 매개가 됐던 점에서의 의미가 있다.

현재 지식출판콘텐츠원은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다국어사전 디지털 출판사업'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2014년 2월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을 통해 자체 개발한 언어사전 19개를 제공하는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다국어사전 서비스를 시행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Naver)에도 지식출판콘텐츠원이 발간한 사전 콘텐츠가 탑재됐다. 이는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어학 교육의 문턱을 낮춘 지식정보의 민주화란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지식출판콘텐츠원은 우리학교가 오랫동안 축적해 온 교우의 지식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해 국내 외국어 교육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기록 및 사진 제공: 역사관

활기를 찾아가는 대학가, 안전한 대면 행사를 위해선

지난달 18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또한 이번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이에 대학가에서도 동아리와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이 다시 활성화 돼 △멤버십트레이닝(이하 엠티)△체육대회△축제 등 대면 행사 개

최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에 우려 점 역시 존재한다. △규제 완화에 따른 대학교 대면 행사 활성화 현황△우려지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의 코로나19 규제 완화와 대학교 대면 행사의 활성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라 기존의 △사적모임△운영시간△종교 활동△집회△행사 등의 제한이 사라졌다. 실내 취식금지 는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을 위해 7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부터 해제됐다. 이번 달 2일부터 50인 이상의 △공연△집회△행사를 제외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학가에서도 규제 완화에 따른 변화가 일고 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따라 양 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각각 지난달 24일과 25일 교내 과방과 동아리방(이하 동방) 개방을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이하 SNS)에 안내했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경우 백년관 체육관을 개방했다. 또한 우리학교는 △단과대학△총학△학과별로 △엠티△축제△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 '이름'은 이번 해 총 두 번의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지만 동아리 연합회와 함께 부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글캠 총학 '외대의 봄'은 이번 달 17일부터 3일간 '2022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축제 spring cooler'를 개최한다. 단과대학 단위로도 대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글캠 공과대학(이하 공대)의 경우 공대 영화관 행사와 축제 부스 운영을 기획 중이다. 이번 달 13일 설캠 사회과학대학(이하 사과대)은 2년 만에 사과대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학과별 과학생태에선 엠티를 중점적으로 기획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더 지켜보려는 일부 학과를 제외하면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와 전자공학과를 포함한 대부분의 과학생태는 엠티를 계획하고 있다.

타 대학에서도 방역 규제 완화에 따라 다양한 대면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달 27일 고려대학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제43회 입실렌티 : 지.야의 함성 [Re-tro]'을 개최한다. 성균관대학교에선 캠퍼스별로 '2022 대동제 ESKARA'가 열릴 예정이다. 해당 축제엔 △야간주점△연예인 무대△주간부스△재학생 공연 등의 대면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서울대학교△부산대학교△한양대학교 등 많은 학교가 대면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대면행사 확대에 따른 우려지점

코로나19 종식이 아닌 시점에서 대면 행사를 진행해 학생들은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르면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식 행사에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그러나 부스나 체육활동 등 행사 운영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주세아(서양어·독일어 22)씨는 "입학 후 처음 경험해보는 대면 행사이기에 꼭 참여하고 싶지만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나아지지 않아 우려된다"며 "행사에 참여하고 코로나19에 감염 될까봐 두렵다"고 전했다.

행사 특성상 사적 모임의 성격이 강한 엠티의 경우 마스크 미착用に 따른 집단 감염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실제로 이번 해 대전 소재의 A 대학교에선 엠티로 인해 20명의 학생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이에 엠티 등 대면 행사를 개최하기엔 아직은 이르단 목소리도 존재한다. 안운지(영어·ELLT 21)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될 시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글로벌캠퍼스 축제 포스터(출처: 외대의 봄 SNS)



▲사회과학대학 체육대회 포스터(출처: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시선' SNS)

못해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상황이 지금보다 더 호전된 후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ELLT와 인도어과의 경우 거리두기 조치가 풀렸음에도 여전히 감염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상황을 지켜본 뒤 엠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의 제한이 사라졌기에 엠티 등의 행사를 진행해도 무방하단 목소리도 존재한다. 천민호(경상·GBT 21)씨는 "지난해 대학교 생활에서 가장 기대했던 엠티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 못해 아쉬웠다"며 "이번 엠티를 계기로 동기와 후배를 많이 알아가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이하 마인어과)의 경우 이번 달 21일 동기 엠티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인(아시아·마인어 18)마인어과 학생회장은 "엠티를 진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가속화된 개인주의와 대학 행사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며 "1,2학년 때 진행하는 엠티가 대학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라고 생각하는 학우들이 많고 이에 따라 엠티를 추진할 것이다"고 전했다.

과방 등 학생자치활동 공간의 개방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우려가 존재한다. 현재 우리학교에선 과방 및 동방에 대한 규제를 각 학과와 동아리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에 마스크 미착용 및 취식 등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찬우(서양어·포르투갈어 21)포르투갈어과 학생회장은 "학교 측에서 과방 이용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며 "과방 사용에 대한 방역을 개인의 자율에 맡길 것이다"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에 따른 우리학교의 대책이 부재한 것은 아니다. 대면 행사와 관련해 설캠 총학은 정부의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바탕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가진단키트 의무화 등의 강제성을 부여하기보다 개인의 자율에 따른 방역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글캠 총학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축제 부스를 실외에 배치해 실내의 인구 밀집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달 17일 영화관 행사를 진행하는 공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공드림'은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영화관 내 음식을 섭취를 허용한다. 이에 김송하(공과·컴전 20)공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은 "음식물 섭취 이외의 경우엔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고 알고 있다"며 "영화관 입장 및 간식 배부시 학우들에게 마스크 착용 수칙을 당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행사에 학생회 인원을 배치해 방역 수칙 위반을 막기 위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엠티를 진행하는 학과 학생회 또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에 힘쓰고 있다. 마인어과의 경우 행사 참여 당일 자가진단키트나 신속항원검사 음성 판정을 받은 학우만 엠티에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이번 해 엠티를 계획하는 페르시아어·이란학과의 경우 △수저△식기△컵 공유 금지와 손소독 및 청결 유지와 같은 예방대책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과방 이용에 관해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한 규제가 마련된 학과도 존재한다. 정치외교학과와 의 경우 학과 SNS에 과방 이용 수칙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은 과방 이용 시 마스크 필수 착용 및 취식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우리학교는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나아지지 않았기에 교육부 지침 및 감염 상황을 살피며 학생 활동 지원을 조금씩 늘려가겠다 입장이 다. 우리학교 학생지원팀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진행하는 학생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대면 행사의 성격을 고려한 방역 수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마련된 코로나19 집단 감염 대책에 대해 여전히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았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다희(응인·21)씨는 "대면 행사와 관련해 현재 제시된 집단 감염 예방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대면 행사에 마음 편히 참여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안전한 대면 행사 개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다.

김상연 기자 04sangyeo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2. 4. 25(월) ~ 4. 29(금)	2022. 5. 30(월) ~ 6. 3(금)
면접전형	2022. 5. 14(토) 10:00	2022. 6. 18(토) 10:00
합격자 발표	2022. 5. 27(금) 16:00 예정	2022. 7. 1(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2. 5. 30(월) ~ 6. 3(금) 예정	2022. 7. 4(월) ~ 8(금) 예정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 국어교육 - 영어교육 - 컴퓨터교육 - 스페인어교육 - 일본어교육 - 중국어교육 - 역사교육 - 일반사회교육 - 유아교육 - 수학교육 - 상담심리(전문상담교사 2급)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 어린이영어교육 - 독서논술교육 - 인공지능융합교육 - 혁신미래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나. 외국대학, 독학사는 졸업자에 한해 지원 가능
다.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지원전공의 관련학과(전공)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전공학점 30점 이상 이수자

◆ 우대사항

가. 한적교사 장학금 지급
나. 교원자격증 취득자는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유웨이어플라이 Uway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일부 전공의 경우 온라인(비대면)면접을 실시 할 수 있음.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입 학 문 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TEL 02)2173-2419 FAX 02)2173-3358)
○ 주 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출 때 이 지 : gse.hufs.ac.kr
○ 이 메 일 : hufsgs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2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2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2.04.25(월) ~ 05.06(금)	2022.05.30(월) ~ 06.10(금)
고사장 발표	05.12(목) 15:00	06.16(목) 15:00
면접전형	05.14(토) 10:00 예정	06. 1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05.26(목) 15:00	06.30(목) 15:00

· 위 전형계획 및 시행 일정은 정원 총원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문학 학과
라. KFL 문화 간 소통 전공(협동과정)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금 학기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와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 가능)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8) 재학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1) 자격증 : 초·중·고교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학기료 조기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국인),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F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장애인 이동권 보장, 모두의 권리를 위한 첫걸음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법안 재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혼잡한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시위를 진행해 연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시민과 전장연 측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장애인 이동권 지하철 시위에 대한 반응△ 장애인 이동권의 역사와 현황△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장애인 이동권 지하철 시위에 대한 엇갈린 반응

지난 3일 전장연은 11일 만에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달 21일 시위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불비는 오전 9시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을 기어가는 ‘오체 투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달 25일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이하 추 후보자)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이하 청문회)가 열리는 지난 2일까지 시위를 중단하며 추 후보자의 답변을 기대했다. 추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위한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해선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전장연은 추 후보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시위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방식에 대해 ‘바쁜 출근 시간대에 시민을 볼모로 잡는 무리한 시위’란 입장과 ‘가장 기본적 권리인 이동권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출근길과 퇴근길 이용률이 높은 지하철역에서 진행돼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지난해 1월에서 11월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전차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해화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 표시도 중요하지만 출근 시간대 시민의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단 측면에서 일정 부분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이하 이 대표)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장연의 시위는 비문명적이고 서울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라며 비난했다. 반면 시위가 일어나게 된 안타까운 현실에 공감하는 정치인도 존재했다. 김계지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 의원)은 지난 3월 28일에 진행됐던 전장연 시위 현장에 참석해 “정치권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는 것에 죄송하다”며 무릎 꿇고 사과했다. 더불어 “지하철 시위 자체에 대해선 일반 시민의 불편함을 이해하지만 장애인들은 오랜 시간 이동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정혜영 정의당 의원은 전장연 시위에 함께하며 동참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장애인 단체 내에서도 전장연의 시위 방식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용기 대표를 비롯한 몇몇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은 전장연 시위에 동참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와 반대로 지난달 2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교통장애인협회 소속 장애인 200여명은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김락환 교통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은 “전장연의 요구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른 장애인 단체와 협의도 없이 지하철 승강기 설치가 이동권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이동권은 보장되고 있나

지하철 연착 시위는 2001년 휠체어에 탑승한 노부부가 휠체어 리프트(이하 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했던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사고’ 이후 최초로 시작됐다. 2017년 리프트 작동 버튼을 누르다 추락한 한경덕 씨

사고를 포함해 리프트 추락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장애인은 총 16명으로 지하철 내 장애인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3일부터 이동권 보장을 위한 출근길 시위가 자주 일어나며 본격화됐다.

전장연은 ‘2022년 장애인예산 요구안’을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장애인 예산 규모는 0.6%로 OECD 평균인 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전장연은 그동안의 시위와 달리 이번 시위는 강성으로 진행했다. 그동안 정치인과 지자체의 이동권 보장 약속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 통과 후 예산에 대한 법안 원안이 임의조항으로 바뀌며 예산 미반영과 비용 부족 문제도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없던 한계를 가진다. 서울시는 2001년 오이도 추락사고 이후 계속해서 이동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명박 제32대 서울시장은 임기 당시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2015년엔 박원순 제36대 서울시장도 지하철역 출구부터 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만으로 이동 가능한 ‘1역사 1동선’을 위해 이번 해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저상버스 75%의 보급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약속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장애인들의 이동 수단은 크게 △대중교통△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자가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 수단엔 △저상버스△역내 엘리베이터△리프트 등이 있다. 저상버스 도입의 경우 지난해 12월 교통약자법이 개정되면서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42%까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엔 저상버스 도입이행을 의무화하지 않기에 전국 평균 저상버스 도입률은 27%에 그쳤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입률을 가진 서울시에서도 저상버스 도입이 지체되고 있다. 서울시는 저상버스 도입을 지난해까지 75%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66.1%에 그쳤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1~2%의 저상버스 도입률을 웃돌고 있다. 저상버스 도입 자체에 대한 한계도 존재한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체 시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단 내용이 있지만 시외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저상 시외고속버스는 0.57%인 10대만 존재하며 전국의 고속버스 노선 169개 중 장애인 이용 가능 노선은 4개뿐이다. 또한 버스 사업자가 해당 지역 도로 구조·시설 등이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승인받으면 저상버스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 과정을 거쳐 저상버스가 도입된다 해도 장애인 이용률은 현저히 낮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 수단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저상버스 이용률은 12.3%다. 이들 절반이 저상버스 이용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의 경우 편리한 이동권을 위해 엘리베이터와 리프트가 설치된다. 리프트가 장애인 사이에서 ‘살인 기계’로 불릴 만큼 사고가 자주 일어나면서 현재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한 지하철역에서만 리프트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박원순 제32대 서울시장도 당시 이번 해까지 1역사 1동선을 위해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전면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기준 서울시 전체 역사 283곳 중 17곳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다. 1역사 1동선을 충족하더라도 여러 개의 출구 중 단 한 곳에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사회적 약자의 불편함은 여전한 상황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저상버스와 비슷하게 수도권에 편중돼 운영되기 때문이다. 장애인 콜택시 등을 포함한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는 장애인 인구 150명당 1대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만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위 조건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과산시가 유일하다. 이런 어려움을 피하고자 자가용 운전을 선택한다 해도 면허 따는 과정은 쉽지 않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험용 차량은 단 1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도 낮은 편이다. 2020년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아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은 63.5%다. 이에 2007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법률을 포함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했지만 이 법안을 알고 있다 고 답한 시민은 10.5%뿐이다.

선진국도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며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이 마련됐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버스 앞을 막고 국회의사당 계단을 기어오르는 등의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진행했다. 이 결과로 1990년 미국장애인법(ADA 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 접근성을 법으로 보장했다.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한 택시 등을 운행하며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모든 공간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독일의 경우 이동수단의 선택권까지 보장된다. 수도 베를린에선 이미 모든 시내버스에 저상버스가 도입된 이후 2013년엔 △버스△시외버스△트램까지 배리어프리(barrier free)를 의무화하는 여객 운송법을 시행했다. 이에 장애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받게 됐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보장 시설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란 의미처럼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실제 우리나라에선 2003년 송내역 시각장애인 추락사고 이후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설치됐다. 오늘날 스크린도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 없이 모든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시설이 됐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단순한 시설 설치에 멈추지 않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양채은 기자 03chaeun@hufs.ac.kr

www.사사한줄토픽.com

정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돼

이번 달 2일부터 3일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이하 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번 청문회에선 전관예우 문제 등 그동안 한 후보자에 대해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한 후보자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추후 양당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사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돼

이번 달 2일 코로나 바이러스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이는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466일 만이다. 다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 및 스포츠 경기 등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한편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더라도 가급적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고위험군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 서울 집값 15주 만에 상승해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값이 15주 만에 상승했다.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달 2일 기준 서울 집값은 0.01% 올랐다. 이에 부동산원 관계자는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이나 15억 원 초과 강남권 초고가 단지가 오르며 서울 집값 전체가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국제 중국 베이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정책 확대해

지난 5일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일부 지하철역을 폐쇄하고 재택근무를 강제하는 등 이동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 이는 노동절 연휴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실시한 강력한 방역 정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에 따라 베이징에선 식품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거나 출퇴근 교통 혼잡 문제 등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에서 엄격한 방역 조치가 취해지면서 노동절 연휴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쟁, 공정한 수사 체계를 위해선

지난달 30일과 이번 달 3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하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권력 분립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에 여야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국민△법조인 등 많은 사람이 이 법안에 관심을 쏟고 있다. △검수 완박 논의△우려 지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시킨 검수완박 법안

지난달 30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엔 다른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한 본회의를 통과해 검수완박 법안이 전부 통과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하 문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같은 날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 및 공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전과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선택적 정의△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며 검수완박 추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에 오는 9월부터 검수완박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2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도록 변경△검사 자신이 개시한 수사에 대해 공소 제기 금지△보완수사 범위 제한△별건 수사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수사 권한을 한 단계 더 축소시킨 것이다.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논의돼 온 사안이다. 2016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진경준 전 검사장△홍만표 전 변호사 등이 일으킨 검찰 비리 논란으로 인해 검찰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시선이 늘었다. 여러 차례 일어난 검찰 내 사건·사고로 인해 검찰의 권력 독점과 비리 문제를 견제할 기관이 필요하던 인식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검찰의 수사권 제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2020년 7월엔 검찰의 독점 수사를 견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설립했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경제범죄△공직자범죄△대형참사범죄△방위사업범죄△부패범죄△선거범죄의 6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행했다.

◆ 검수완박 법안의 쟁점은?

검수완박 법안은 70여 년간 존재하던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근간부터 바꾸는 법안이란 점에서 전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에선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난달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며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3일 뒤인 25일, 국민의힘이 이 결정을 번복하며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한 갈등은 더욱 악화됐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 통과를 저지했으나 민주당은 회기를 각각 △지난달 27일△30일△이번 달 3일로 쪼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다.

검수완박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검수완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검사가 독점적으로 보유하던 수사 권한이 경찰에게 분담돼 검경 간 상호 견제가 이뤄질 수 있던 것이다. 또한 중대한 사안일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기에 검찰의 역할이 여전히 중

요하게 작용할 수 있던 입장을 보였다. 이 점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중요한 사안에만 집중할 수 있고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의 의의를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이하 박 원내대표)는 “70년간 민주화를 이루며 선진국에 오른 우리나라가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반겼다. 경찰 출신이던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수사 현장에서 경찰로서 불합리함을 느꼈다”며 검경 간 권한이 균형을 맞추게 된 걸 환영했다.

한편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개정 및 신설되는 법안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사태를 우려한 것이다.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될 경우 경찰의 업무가 과중돼 수사 진행이 크게 지연될 수 있다고 예측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지난해 1~10월 수사관 1인당 맡은 사건은 17.9건이었다. 15건이었던 그 전 해보다 19.3%가 늘어난 것이다. 경찰의 1인당 평균 사건 처리 시간도 63.2일로 55.6일보다 8.6일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이번 검수완박 법안 공포로 경찰에 업무가 더 과중될 것으로 예상해 TF를 구성하고 인력과 예산 확충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는 여전히 수사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오선희 법무법인 헤명 소속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대신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 경찰의 사건 적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립 문제에 관해서도 찬성과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중수청이 설립되면 2개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가 가능했던 검찰의 권한이 모두 중수청으로 이양된다. 다만 검찰청이 정부 산하 법무부 소속인 데 반해 중수청은 공수처와 같이 독립 기관으로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으로서 중요 범죄를 수사할 기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중수청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수청 설립에 반대하는 측에선 검찰의 수사 전문성이 무시돼선 안 된단 입장을 보이는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의 법률가인 검사의 수사를 제도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건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중수청 설립을 비판했다.

법안 개정 논의가 졸속으로 치러져 법적 모순이 생길 수 있던 시기도 존재한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앨 경우 우리나라의 기존 사법 체계에 막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 과정이 면밀하게 다뤄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다고 직접적으로 명시돼있진 않지만 검사가 법관에게 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헌법이 검찰의 수사권을 간접적으로 보장하고 있던 해석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수사권 제거 문제가 이 두 개의 조항과 충돌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구 하겠다 계획이다. 대검찰청 측은 “법을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다”며 헌법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헌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 존재하는 검찰 관련 조항도 수정해야 한다. 일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29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심각하게 위반

한 중대한 사항을 다룰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이러한 고발권이 어느 주체에게 이전되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듯 사법 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사안이니만큼 법적 요소와 각 법 간의 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수완박은 형사 사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형사 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검수완박 법안,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박 원내대표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보유하고 있어 권력을 과도하게 지니고 있다”고 말한 데 반해 차호동 대구지방검찰청 기획검사(이하 차 대구지검 검사)는 “오늘날 대다수 국가에서 검찰이 사건에 개입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2017년 기준 OECD 35개국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수사권이라도 운영방식에선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나라인 △독일△미국△일본이 있다. 독일은 대기업이 연루된 사건 등 중요한 사건을 수사할 때만 중첩 검찰청을 지정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진행한다. 미국의 경우 선거법 위반과 같은 중대한 사례를 다룰 땐 연방 검사가 연방 수사국(FBI)과 협업해 수사를 진행한다. 일본 역시 미국과 비슷하게 정치인과 대기업이 연루된 특수한 사건은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 채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나라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영국 △이스라엘△캐나다가 그렇다. 영국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 이전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할 권리도 가지는 한편 검찰은 기소권만을 가진다. 이스라엘은 경찰이 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며 검찰에게 수사 지휘도 받지 않는다. 경범죄인 경우 경찰이 기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 캐나다 역시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경찰이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다. 검찰은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제한적으로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와 차 대구지검 검사가 상반된 입장을 보인 건 실제로 나라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9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검찰청△국민의힘 △법조계 측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기는 등 법안 시행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사권 조정 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단 것이다. 김재훈 한 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사권의 심부름 조정은 국가 전체 수사 능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이 받을 사법 서비스의 질 역시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의 검찰 운영 방식에 대한 비교와 대국민적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바른 수사 형태 확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국회에서 법안의 표결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주 행해진다.

장래산 기자 03raesa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야간) 2022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2022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2.04.15(금) ~ 05.02(월)	2022.05.20(금) ~ 06.03(금)
고사장 발표	2022.05.11(수) 15:00	2022.06.15(수) 15:00
면접전형	2022.05.14(토) 10:00 예정	2022.06.1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2.05.27(금) 15:00	2022.07.01(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2.05.30(월) ~ 06.03(금)	2022.07.04(월) ~ 07.08(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공공감사 : 정책학과(공공정책, 공공감사)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
라. 문화언터테인먼트학과(문화언터테인먼트)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우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제출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전형장소:서울캠퍼스 (자세한고사장및고사실은추후공지)

7.기타사항

가. 장학금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 됨)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
- 공로 장학금 - 학비감면 장학금
- 원우회 임원 장학금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
- 본 대학원 내 학과간 교차수강(졸업학점의 50% 까지 가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

TEL_ 02-2173-2428,2429 FAX_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2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모집

1.2022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2.04.18(월) ~ 05.02(월)	2022.05.20(금) ~ 06.03(금)
고사장 발표	2022.05.11(수) 15:00	2022.06.15(수) 15:00
면접전형	2022.05.14(토) 10:00 예정	2022.06.1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2.05.26(목) 15:00	2022.06.30(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2.05.30(월) ~ 06.03(금)	2022.07.04(월) ~ 07.08(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7.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행)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행)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대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소지자, TESOL자격증 취득자)

마. TESOL연구과정(자격증 과정)수료자 우대
바. 복수학위프로그램(템플대학교), 3+1 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 프로그램(California State University, Selkirk College)
아. 추가학점(아스트랙신설
(논문·졸업연구보고서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한국외국어대학교TESOL대학원교학과

TEL_02-2173-3521~2FAX_02-2173-358

(우)02450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로107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TES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세상에 나라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

어릴 땐 죽음이 두려웠다. 평소 쉽게 잠들지 못했던 난 매일 밤 죽음에 관한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사라진단 것이 무서웠다. 처음엔 ‘어차피 죽을 운명인데 열심히 살아야 할까’란 무기력한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는 곧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내 흔적을 세상에 남기자’란 결심으로 바뀌었다. ‘공익 실현’이란 긍정적 변화를 통해 내 흔적을 남기고자 다짐했다.

공익 실현이란 삶의 목표를 세운 후 앞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이왕이면 내가 꿈꿔온 직업과 연관 짓고 싶었고 꼭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좋았다. 난 학창 시절 장래희망 조사에서 줄곧 기사를 써냈다. 그러나 당시 고된 입시를 치르던 나에게 기자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채우는 명목으로서의 꿈에 불과했다. 기자란 직업을 막연하게 동경했지만 꼭 기자가 아니어도 괜찮았다. 당장 눈앞의 대학교 합격증이 더 간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학교에 입학한 후 영화 ‘베로니카 게린(Veronica Guerin)’을 보고 진정으로 기자가 되고 싶단 생각을 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한 상황임에도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자 ‘게린’의 모습에 많은 것을 느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기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한 해가 거의 끝나가는 추운 겨울 무렵 외대학보에 지원했다. 학내 기자로 활동하는 것이 공익 실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부족하지만 수습기자 선발에 열심히 임했고 다행히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대학보 방중교육을 받으며 많이 위축됐고 자신에게 실망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 글쓰기 실력은 한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사안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식견이 좁다고 느꼈다. 평소 글을 써본 경험도 많이 없었고 책을 자주 읽는 편도 아니었기에 어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학내 기자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스스로 의구심이 들었다. 사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나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외대학보 내의 다른 기자들과 함께 취재하고 마감을 진행하면서 경험이 쌓임에 따라 나에 대한 불신을 점차 극복해 나가고 있다.

외대학보 정기자로서 총장선거에 관한 기사를 작성했다. 기사 말미엔 지난해 이뤄진 총장선거에서 모든 학내 구성원의 입장이 동등하게 반영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비록 기사를 쓰기 위함이었지만 처음으로 학내 사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알아봤다. 밤새 마감을 진행하며 몸은 점점 지쳐갔음에도 내가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했던 사실이 뿌듯했다. 또한 학내 구성원이 내 기사를 읽고 해당 사안에 대해 각자의 방향성을 설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기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느꼈다.

이제 막 외대학보에서의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고된 여정이 펼쳐질지 예상할 수 없음에도 난 항상 기대에 차 있다. 당장 내 기사가 우리 학교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비하겠지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면 나에겐 그 자체로 소중하다. 유명한 작곡가의 곡처럼 거대한 흔적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기자로서 남기는 작은 흔적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난 이 세상에 내 흔적을 남기기 위해 노력한다.

김상연 기자

[책 ‘불편한 편의점’을 읽고] 불편하지만 따뜻한 것들

우린 급하게 무언가를 사야 할 때 별다른 고민 없이 편의점으로 향한다. 편의점은 주위를 둘러보면 쉽게 찾을 수 있고 그 이틈에 걸맞게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 과자와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부터 간편 조리식품과 필기구까지 웬만한 것들은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책 ‘불편한 편의점’ 속 ‘ALWAYS 편의점’은 우리가 아는 편의점과 달리 불편하다. 판매되는 도시락과 맥주의 종류도 주위의 다른 편의점보다 다양하지 않지만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편해야 할 편의점이 불편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새로운 알바생 ‘독고’ 씨 때문이다.

계산할 때 말곤 별다른 대화가 오가지 않는 편의점은 독고 씨가 등장하고부터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는 손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새벽에 항상 편의점에 오는 손님을 위해 도시락을 남겨놓고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에게 술을 끊으라며 옥수수수염차를 건넨다.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은 이런 독고 씨의 친절이 고마우면서도 조금은 과한 참견엔 불쾌함을 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내 독고 씨의 말과 귀가 그리워 편의점에 다시 찾아오게 된다. 독고 씨는 편의점에 오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경청해줬을 뿐이지만 그들은 독고 씨로부터 큰 위로를 받는다. 편의점에 오는 손님 모두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다. 작가는 △꿈을 위해 노력하는 희극작가 준비생 △사업에 실패한 청년△상사의 갑질로 힘들어하는 회사원△취업을 못 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편의점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는 공시생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잔잔하게 풀어간다.

[영화 ‘사마에게’를 보고] 시리아에 새로운 하늘이 뜨길

지난 2011년 정부군과 반정부군의 대립으로 시작된 시리아 내전은 어느덧 11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24일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발표한 2020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10년간 시리아 내전으로 35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체를 찾지 못해 포함되지 못한 사망자의 수를 합하면 4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큐멘터리 영화 ‘사마에게’는 이처럼 참혹한 시리아 내전의 상황을 담았다.

시리아 북부 도시 알레포에서 대학을 다니던 ‘와드 알 카팁(이하 와드)’은 정부의 독재에 반발한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한다. 무력 진압을 시도하는 정부군과 무기를 들고 맞서는 비정부군의 대립이 심화되자 도시는 봉쇄됐다. 또한 △이슬람 내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중동호흡기증후군(MERS)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감염병의 창궐△미국과 러시아의 내전 개입 등 국내외적 요소가 겹쳐 전쟁이 장기화된다. 폭격으로 무너진 병원에서 부상자를 도우며 의료봉사를 하던 와드는 반정부군에 속한 의사 ‘함자’를 만나 딸 ‘사마’를 낳는다. 와드는 전쟁 속에서 태어난 딸에게 고향의 참혹한 역사를 전하기 위해 핸드폰을 놓지 않고 5년간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다.

이전에도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는 영화는 많았다. 하지만 사마에게가 다른 영화보다 관객에게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영화의 각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독이자 주연인 와드를 포함한 누구도 이 영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다. 와드가 든 카메라는 그의 시선에 따라 격동적으로 흔들린다. 관객은 카메라와 함께 눈앞에서 전쟁을 마주한다. △눈앞에서 터진 폭탄에 휘청이는 화면△지뢰에 다리가 잘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요즘 사회를 보면 진정한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느낀다. 사회 내 계속되는 세대 갈등과 남녀갈등 등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모두 소통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다. 서로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면 갈등이 훨씬 완화될 텐데 그러기엔 우린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학창 시절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말하는 방법은 배웠지만 그 누구도 경청하는 법을 알려주진 않았다. 부족한 경청 능력은 사람들을 진정한 대화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최근 한 달여 간 중북학과 폐과존치 관련 사안으로 우리학교가 소란스럽다.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엔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 학생이 서로를 비방하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왔다. 모두 상대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기 바빴다. 이를 보며 올바른 소통과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진정한 대화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독고 씨와의 대화 안에서 치유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그 정답이 경청이란 것을 알려준다. 독고 씨의 말처럼 결국 삶은 관계이고 관계는 소통이다. 작가는 그의 참견과 경청이 이뤄지는 공간을 편의점으로 한정 짓고 있지만 사실 이 작고 불편한 편의점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닦아야 할 모습일 것이다. 진정한 소통을 위해 우리 모두 상대의 말에 기꺼이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대개 불편하지만 따뜻하다.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린 아이의 울음소리△폭격에 굶린 카메라 렌즈 등을 통해 관객은 사실적으로 표현된 광경에 몰입하며 전쟁의 참상에 탄식하게 된다.

영화를 보면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해 지속되는지 묻게 된다.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죽었다. 사상의 차이로 시작된 참상은 어느덧 죽고 죽이는 행위만 반복하는 결과를 낳았다. 시리아 사람에게 전쟁은 일상이 됐다. 500만 명이 넘는 시리아 국민은 전쟁을 겪고 난민의 신분으로 세계를 떠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결코 따뜻하지 않다. 지난해 6월 19일 유엔난민기구가 공개한 ‘2019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난민 심사를 통과한 후 각 수용 국가에서 △경제적 어려움△전쟁△정치·종교적 박해로 사실상 추방당한 전 세계 난민은 2,900만 명에 달한다. 한 국가의 인구 전체와 맞먹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속하는 스페인 마르타트리아스오스트리아체코스웨덴 등 12개 국가는 난민을 막기 위한 국경 장벽 설치 계획을 밝히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장벽 설치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자국의 보안을 이유로 난민을 밀어내기 급급한 국가의 모습을 보면 쓸쓸함을 느끼게 된다.

사마는 아랍어로 ‘하늘’을 뜻한다. 영화 속 알레포 사람들이 ‘오늘은 하늘이 깨끗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오염되지 않은 푸른 하늘을 바라본 것이 아닌 폭격이 없고 사람이 죽지 않는 하늘이 오길 바랐기 때문이다. 전쟁을 겪고 있던 와드와 함자에게 찾아온 사마(하늘)처럼 시리아에도 새로운 하늘이 떠오르길 바란다.

김하형 기자 03hahyung@hufs.ac.kr

1066호 학보를 읽고

격변기 속 우리학교의 발전을 위해선

학생 간 전공언어(이하 전공어) 학습격차는 매 학기 초 불거지는 문제 중 하나다. 나 역시 외국어고등학교를 거쳐 전공어권 국가에서 생활했던 학생이 많은 학과 소속 이기에 이번 1066호의 기획 기사에 더 눈길이 갔다. 전공어를 이미 익히고 온 학생과대학 입학 후 처음 전공어를 접하는 학생 사이엔 큰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3면 기사에선 전공어 학습 격차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어과와 독일어과에서 실시하는 수준별 강의를 제시했다. 개인적으론 우리학교 특성상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높기에 이를 활용한 멘토·멘티 프로그램이나 튜터링 프로그램 등이 지속해서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어에 대한 열의를 갖게 하려면 실력 차이에서 오는 좌절감부터 줄여야 한다. ELLT 학과처럼 입학 전 자체 시험을 통해 수준별 강의를 편성하는 것 또한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여러 해결책을 적극 수렴해 학생 간 실력 차이를 줄여 학생들이 언어를 배울 때 느끼는 즐거움이 더 극대화되길 바란다.

4면에서 다룬 박정은 우리학교 총장과의 인터뷰 또한 흥미로웠다. 현재 가장 뜨거운 화두인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 학습권 회복 계획’과 ‘학사제도 개편’ 등에 대한 총장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기사였다. 박 총장은 유사 · 중북학과(부)폐과존치(이하 폐과존치)로 인해 우리학교가 이원화 캠퍼스가 아닌 본 · 분교

강승희(서양어 · 노어과 21)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로 인식된단 문제점을 짚으며 이를 조정하고 각 캠퍼스를 특색 있는 대학으로 탈바꿈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폐과존치는 2014년 이원화 이후 꾸준히 제기되던 안건이다. 박 총장은 총장으로서 양 캠퍼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폐과존치 방법을 고심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박 총장은 임기 동안 학생과의 소통에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디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 학생을 위해 더 힘쓰는 우리학교가 되길 바란다.

5면에선 코로나의 확산세 속 학습권 보장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우리학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강 정원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으로 강의를 나누고 확진된 학생들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송출 방식(미러링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해당 방식은 오히려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미러링 방식은 통신 오류나 흐릿한 카메라의 화질 등으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보다 강의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해결책으로 제시된 ‘강의 녹화 및 학습자료 제공’에도 한계가 있기에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긴장을 늦추긴 이르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1066호 학보를 읽고

공정한 하나 됨을 위해

싱그러운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왔다. 마스크를 벗고 거리를 활보해도 더 이상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할 시기지만 우리학교는 아직 안팎으로 크고 작은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김인철 우리학교 제11대 총장은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올랐지만 총장 재임 시절부터 문제가 된 학점 특혜 논란과 회계 부정 비리 등으로 자진 사퇴했다. 또한 교내에선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학칙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노숙 농성을 결의했다. 모든 학내 구성원이 각자의 상황에는 성숙한 대응을 하길 희망한다.

3면에선 우리학교 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전공언어(이하 전공어) 학습격차에 대해 다뤘다. 해당 기사에서 전공어를 처음 접했던 재학생의 인터뷰는 우리학교의 수준별 분반 강의와 성적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전공어를 처음 접한 재학생의 어려움은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학과 교육과정이 전공어에 숙달한 학생에게 유리하던 의견은 과거부터 제기됐다. 학교 측은 매해 올바른 전공어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불공정한 성적 평가의 해결을 위해 학사제도 협의회 등에서 학생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4면엔 박정은 우리학교 제12대 총장(이하 박 총장)의 우리 학교 발전 계획을 다룬 기사가 지리했다. 해당 기사에선 최근 교내에서 쟁점이 된 캠퍼스 간 유사 중북학과 조정과

김현익(공과 · 컴전 17)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AI 융합대학 및 대학원 설립’에 대한 계획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침체된 국제교류 프로그램 활성화와 강의 질 향상에 대한 약속은 박 총장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어려움을 잘 파악했던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후보자 시절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된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한 공인들은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금 마련에 힘쓰겠다는 계획과 학생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겠다는 발단만으론 학생에게 확신을 줄 수 없다. 확실한 해결책을 통해 우리학교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길 바란다.

5면에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리학교의 대응 방식을 엿볼 수 있었다. 해당 기사를 통해 우리학교도 방역 지침 준수에 대해 수업에 적극 확대했지만 학습권이 완전히 보장됐다고 보긴 어려운 상태란 사실을 깨달았다. 특히 대부분 학과가 화환화되지 않은 수업 대체 학습방안을 제공한 단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학생들의 불안이 지속된단 사실을 알게 됐다. 모두에게 공평한 학습권이 보장되길 소망한다.

이번 1066호를 읽으며 우리학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변화가 필요하단 사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 선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으로 학내 구성원 모두가 문제 상황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 상황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우리학교 발전의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



국·부장 고정칼럼

소통의 중요성

지난 2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해 실외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라 우리학교에서도 △멤버십트레이닝(이하 엠티)△축제△체육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년 1개월 만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소식에 학생들은 기다리던 대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기쁜단 입장과 코로나19 종식이 아닌 시점에 대면 행사를 계획하기 이르단 입장이 대립을 이뤘다.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진행되는 엠티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우려를 피할 수 없다. 또한 협소한 공간에서 음식물을 섭취한다면 집단 감염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학과 별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구성원과의 소통 능력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통이 단절된 관계는 모두 끊기길 마련이다. 박정은 총장(이하 박 총장)과의 소통을 위한 양 캠퍼스(이하 양 캠퍼) 총학생회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우리학교 법인 이사회 회의에서 유사·중복학과(부) 폐과조치와 관련한 규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해당 규정안엔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폐과조치 대상의 학과 졸업생에게 보상으로 서울캠퍼스 졸업증명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양 캠퍼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극대화됐다.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엔 서울캠퍼스 학생과 글캠 학생이 서로를 헐뜯고 상대 캠퍼스를 혐오하는 내용의 글이 계속해서 작성됐다. 이처럼 소통의 부재는 참혹한 결

과를 낳는다. 박 총장은 지난 8년간 불통 행정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학교를 잊지 말길 바란다. 하루빨리 양 캠퍼 학생에게 폐과조치의 이유와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의 입장을 지혜롭게 반영해야 한다.

헌법 제34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란 내용처럼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진행한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장애인들의 당연한 요구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은 지하철 시위에 불쾌함을 드러낸다. 인구가 밀집된 공간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시위는 열차 지연이란 불편함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2001년에 시작돼 20년이 넘게 이어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국 모든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현재까지도 그들을 위한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운행은 변함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육△사회적 활동△문화생활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그들의 이동권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참여가 온전히 보장되길 바란다.

박채빈 부장 02chaebin@hufs.ac.kr



기자들이 찍은 우리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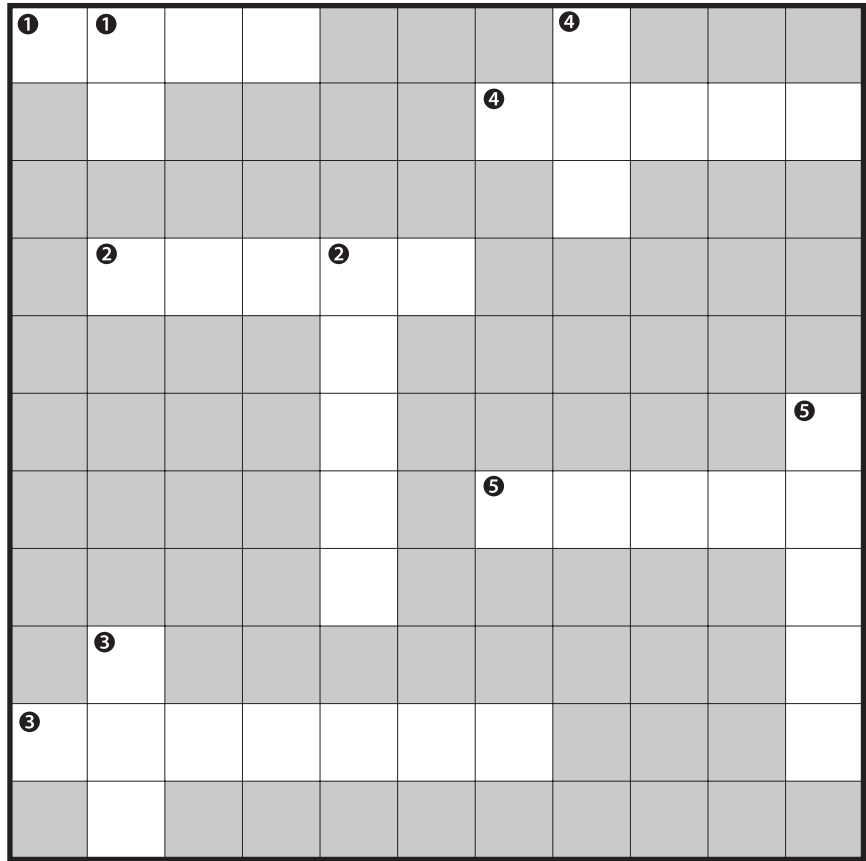


▲ 2021년 5월의 서울캠퍼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학교 분수대의 모습이다. 차가운 물줄기와 함께 내리쬐는 햇살이 기분 좋은 인사를 건넨다. 분수대에서 무더운 여름의 열기를 잠시나마 식히길 바란다.

김상연 기자 04sangyeon@hufs.ac.kr

십자말풀이



가로

- 1. 우리학교 측은 지난 3월 2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유사·중복학과(부) 학생 대표자들에게 유사·중복학과(부) 0000와 관련한 '구조조정안 및 관련 학과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제시했으며 0000를 공식화했다. (4면 참조)
- 2. 또한 학습 과정에서 컴퓨터 공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00000'를 실시해 주기적으로 재학생을 돕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5면 참조)
- 3. '00000000 (이하 중수형)' 설립 문제에 관해서도 찬성과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9면 참조)
- 4. 실제 우리나라에선 2003년 송내역 시각장애인 추락사고 이후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지하철 00000가 설치됐다. (8면 참조)
- 5.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00000기반 딥러닝 기술 융합 과정'이 있다. (1면 참조)

세로

- 1. 00 등 학생자치활동 공간의 개방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우려가 존재한다. (7면 참조)
- 2. 지난달 13일 김 전 총장은 윤 대통령에 의해 사회부총리 겸 00000 후보자로 지명됐다. (3면 참조)
- 3. 000은 우리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에게 국내 부문과 해외 부문으로 나누어 수여되는 상이다. (2면 참조)
- 4. 특히 '000 아기 상어 체조' 유튜브(You Tube) 동영상은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와 동시에 100억 뷰를 기록했다. (12면 참조)
- 5.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00000를 신청해 법안 통과를 저지했으나 민주당은 회기를 각각 △지난달 27일△30일 △이번 달 3일로 쪼개 검수완박 법안을 별 탈 없이 통과시켰다. (9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세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사설

공급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그 여파

지난 4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8%로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7%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이다. 러시아는 전 세계 천연가스 수출 1위, 석유 수출 2위의 에너지 강국이다. 또한 △곡리△밀△보리 등 농산물 생산에 있어 세계 2~4위를 차지한다. 전쟁터가 되어 버린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 지대에 위치한 농업 강국이다. 원자재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의 고물가 추세는 공급부족에 의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수요과잉에 의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경기호황과 더불어 진행된다. 반면에 공급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를 부추긴다.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제 때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불경기과 고물가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으로 일컫는다.

경제침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수요충격과 공급충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요충격은 수요를 구성하는 △소비△순수출△정부지출△투자가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2009년의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소비 위축이 그 예이다. 수요충격에 대응하는 방법은 확장적 재정 또는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재정지출을 늘려 위축된 민간의 수요를 보완하고 기준금리를 낮춰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폭등은 전형적인 공급충격이다. 공급부족으로 인해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물가상승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1970년대에 두 차례 있었던 석유파동이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 시작되면서 중동의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약 3개월 만에 원유 가격을 거의 4배 인상했다. 이 조치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불러일으켰다. 문제는 공급충격이 발생할 경우엔 단기적으로 대응방법이 매우 협소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공급충격은 어떠한 여파를 낼 것인가. 첫째, 적어도 1~2년간은 고물가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충격을 국민경제 전체가 몸으로 받아내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중앙은행의 고민은 더 커질 것이다.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구조 상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무역수지 적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외환보유고의 고갈, 환율 급등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공급충격은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구조조정을 불러일으킨다. 중동지역의 불안이 계속되자 많은 국가들은 대안으로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린 바 있다. 또한 에너지 수입국을 다원화하고, 생산과 소비에 있어 에너지 효율을 강화했다. 즉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거나 수입원을 다원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원자재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현재의 공급충격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우선, 선진국들은 에너지와 공급망에 관한 경제안보 해결에 더 큰 역점을 둘 것이다. 이번 에너지 가격의 폭등은 정치·군사적 갈등에 의해 촉발된 것이지만 변화는 경제 분야에서 나타날 것이다. 당장 유럽연합(EU)은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수입을 올해 말까지 2/3 수준으로 줄일 것이며 석유수입은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미국, 중동과 같은 에너지 수출국과 동아시아와 같은 수입국에 모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 조치는 화석연료 사용을 절감하는 기후변화 대책과 연계되어 환경관련 규제는 더욱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식량가격의 급등은 개발도상국의 정치·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10년에 발생한 중동지역의 민중봉기인 '아랍의 봄' 사건의 도화선은 곡물 가격의 급등에 따른 민생불안이었다. 다시 말해 축적된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부조리가 치솟는 물가에 의해 폭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곡물 자급률도 2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급부족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며 다른 국가들의 대응에 따른 2차 충격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 강유덕(LT학부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2jbb@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강유덕
편집장 정봉비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다채로운 콘텐츠로 전 세계를 사로잡는 주혜민

더핑크퐁컴퍼니 사업개발총괄이사를 만나다



‘더핑크퐁컴퍼니(The Pinkfong Company)’는 △영화 및 애니메이션 시리즈△음원△공연△게임 등의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제작△유통△서비스하는 기업이다. 특히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 유튜브(You Tube) 동영상은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넘어 100억 뷰를 기록했다. 주혜민(서양어·스페인어 10) 더핑크퐁컴퍼니 사업개발총괄이사(이하 주 이사)는 영·유아를 넘어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 영역에 맞춰 콘텐츠 산업을 개척하고 있는 주 이사를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스페인어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외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가 컸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인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 스페인어과에 진학했어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국가의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단 점이 즐거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Q2. 기억에 남는 대학 시절 활동이 있나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과 교류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전 다양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교환학생을 갔고 외국인 유학생 버디 프로그램 활동을 했어요. 이런 경험이 해외 사업을 펼칠 때 많은 도움이 됐죠. 또한 교직 이수를 한 경험도 기억에 남습니다. 외국어 수업을 준비하며 학생을 위한 교육자료로 다른 나라의 인기 애니메이션을 찾아봤던 경험은 현재 콘텐츠 기획 업무에 도움을 줬죠.

Q3. 더핑크퐁컴퍼니에 처음 입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우리학교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했던 만큼 외국어 역량을 살려 해외 사업에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더핑크퐁컴퍼니의 ‘글로벌’과 ‘모바일’이라는 키워드에 매력을 느꼈죠. 입사 당시 더핑크퐁컴퍼니는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모바일 사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Q4. 올해 1월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 유튜브 영상은 세계 최초로 100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 영상이 이처럼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은 △귀에 맴도는 멜로디△선명한 색깔의 캐릭터△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율동이라고 봅니다. 또한 크고 험센 동물을 좋아하는 어린 아이들의 성향을 반영했던 것도 효과적이었죠. 기존의 유·아동 콘텐츠가 △닭△소△양 등 순한 동물을 주인공으로 다룬 데 반해 상어를 등장시킴으로써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어요.

Q5. 해외시장을 겨냥한 콘텐츠 기획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전 세계인에게 콘텐츠를 선보이는 만큼 콘텐츠가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을 항상 고려해야 해요. 더핑크퐁컴퍼니가 친환경,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고려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이유와도 맞닿습니다. 최근 더핑크퐁컴퍼니는 어린이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 보호를 위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기후변화동영상을 선보였어요. 이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수칙과 멸종 위기에 놓인 북극곰 등의 소재를 재밌는 율동과 가사로 표현했죠.

Q6. 더핑크퐁컴퍼니가 해외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 세계인이 다양한 언어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현지화 전략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현지화를 위해 현재까지 5,000여 편이 넘는 동요·동화 영상 콘텐츠를 △한국어△영어△중국어△스페인어△러시아어△일본어△태국어△포르투갈어 등 20개 언어로 선보였죠. 또한 국내의 500여 개 회사와 1,000건 이상의 상표권 계약

을 체결하며 협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나아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중국 상하이△홍콩△싱가포르에 해외 법인을 세워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Q7. 앞으로 더핑크퐁컴퍼니의 사업적 목표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핑크퐁과 아기상어를 잇는 신규 IP(지식재산권) 제작 및 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베베핀(Bebefinn)’이란 3D 인간형 캐릭터 애니메이션이에요. 베베핀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생활 밀착형 뮤지컬’을 주제로 20개월 아기 핀(Finn)을 포함한 5인 가족의 일상을 노래와 율동으로 그려냅니다. 특히 △간단한 가사와 친숙한 선율△아이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안정된 박자△에피소드별 줄거리에 맞춘 3분가량의 음악을 바탕으로 기획한 것이 특징이죠. 베베핀 유튜브 영문 채널인 ‘Bebefinn - Nursery Rhymes & Kids Songs’은 개설 3주 만에 구독자 1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채널에 수여되는 실버버튼(Silver Creator Award)을 수상했습니다.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5월 중국문체부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1020 세대를 겨냥한 ‘문샤크(Moon Shark)’ IP도 개발 중이에요.

Q8. 주혜민 사업개발총괄이사가 아닌 사람 주혜민이 중요시하는 삶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감사하고 사랑하며 즐겁게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전 일에 몰입해서 얻는 재미가 크기 때문에 일과 삶을 분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또한 콘텐츠 업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으로 제가 속한 일터에서의 업무와 동료에게 시간과 애정을 쏟을 수 있어 하루하루가 즐겁고 감사하다고 느껴요. 가끔은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럴 땐 좋아하는 시인인 알프레드 D. 수자(Alfred D.Suja)의 시 ‘Love, like you’ve never been hurt(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의 구절인 ‘Love, like you’ve never been hurt. Dance, like nobody is watching you. Sing, like nobody is listening to you. Work, like you don’t need money. Live, like today is the last day to live!’(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았던 적이 없는 것처럼. 춤추라, 아무도 너를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살라라, 오늘이 사는 마지막인 것처럼)’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Q9. 콘텐츠 산업 직종으로 진출하길 꿈꾸는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다양한 언어와 지역문화를 배울 수 있는 학교△학교 내 많은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성과 다문화에 대한 감성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죠. 따라서 교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자연스럽게 콘텐츠 산업에서의 직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K-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기여할 기회도 얻을 수 있죠. 더핑크퐁컴퍼니 혹은 콘텐츠 업계에서 좋은 인연으로 뵈길 기대합니다.

지명원 기자 04jimw@hufs.ac.kr

바이어 발굴 해외투자 진출

무역·투자의 모든 것,
KOTRA와 상담하세요!

☎ 1600-7119

전 세계 127개 무역관이 도와드립니다.

수출애로 상담 투자유치 지원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KOTRA가 되겠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투자 종합 상담
☎ 1600-7119